

“금강산은 부처님 땅이다”

“여기(금강산)가 참으로 부처님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죽어 조선사람이 되어 길이 부처님의 세계를 구경하는 것이 소원이다.”(남효은의 秋江集중에서). 1469년 중국 사신인 부사 정동이 금강산에 갔을 때 일행중 한 사람이 보덕굴 앞 연못인 벽하담에 빠져 죽으며 한 말로서, 당시 중국인들 사이에 금강산을 이상적인 불국토로 여기는 신앙이 퍼져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한국불교의 성지, ‘그리운 금강산’을 조상이 남긴 그림과 문헌으로 살펴본 연구서가 처음으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뉴욕주립대 객원연구원인 박은순씨(39)는 고려말부터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선조들이 그림으로 가장 많이 남긴 ‘금강산도(金剛山圖)’를 중심으로 전통회화와 국학재민야의 연구를 수렴한 책 <금강산도 연구>(일지사 刊)를 최근 펴냈다. <금강산도>를 통해 우리 민족과 문

박은순씨 ‘金剛山圖 연구’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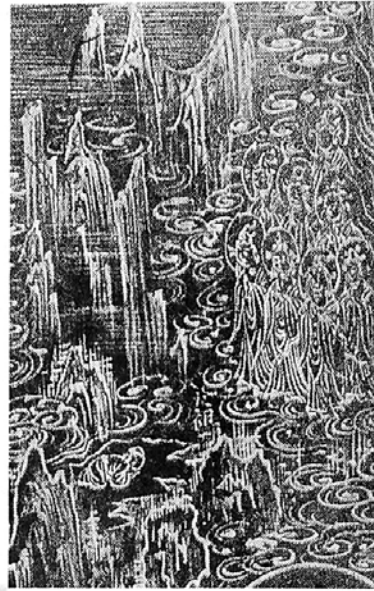
화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 이 책은 ‘금강산’이라는 이름의 유래와 변천, 불교신앙과 관조의 대상으로서의 의미와 역할, 금강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학과 미술의 성격과 특징 및 상호관련성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비슷한 열반(涅槃) 기담(稽檀) 중향성(衆香城) 등 불교적 명칭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이에 따르면 금강산이란 이름은 <화엄경> ‘보살주처품(菩薩主處品)’에서 유래되었다.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란



상’은 담무갈(曇無竭)보살이 거주하는 곳, ‘기담산’은 <화엄경>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바다에 떠있는 섬’이란 뜻을 담고 있다.

금강산 그림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1307년 노영(魯英)이 그린 ‘담무갈보살에배도’ 고려 태조가 금강산에 가서 현신한 담무갈보살을 보고 예배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후 조선후기까지 그려진 금강산에 대한 정경회화만도 2백여점이 넘는다.



◇ ‘담무갈보살 현신도(現身圖)’ 금강산에 대한 정경회화는 2백여점이 넘는다.

14세기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성지가 된 금강산, 이 책은 금강산에 대한 불교신앙의 역사를 증명해 준다는 점에서 교계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14세기부터 동북아 불교성지 ‘화엄경 보살주처품’ 서 지명유래 고려회화·국학자료 등 총정리

개골(骨窟) 풍악(楓嶽) 봉래(蓬萊) 등 금강산에 대한 다양한 명칭을 살펴본 박씨는 이 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인 금강산이라는 이름은 고려말이 이곳이 불교성지로 인식되면서 정착된 이름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금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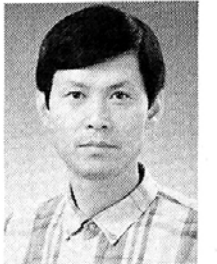
곳이 있는데 옛부터 여러 보살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 지금은 법기(法起=담무갈)라는 보살이 있어 1만2천 권속과 함께 항상 머무르며 설법하고 있다’는 것. 이밖에 ‘열반산’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속칭이었으며, ‘중향

명사추천

불교를 찾아서

내가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초등학교 수학여행으로 수덕사를 다녀온 이후였다. 그로부터 불교 관련 서적을 틈틈이 뒤적였고 나름대로 불교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됐다. 하지만 지식이라고 해야 체계적인 과정을 밟지 않아 그냥 이리저리 깨어 맞춘 남루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절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지금은 불자가 되어 있다. 어느 자리에서 종교문제가 화제로 떠오르면 그저 한마디 거들게 되는 일도 적지 않다. 지식의 단편들을 주섬 주섬 되뇌이면서 불자다운 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았다. 어차피 아무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선지식이라고 해도 불교를 한달음에 깨우쳐 주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고 보면 이름 알아도 저를 알아도 불교 교리 자체를 왜곡하는 일은 없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면 불교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란 형식과 절차가 무수한 학문적 시각의 범주를 넘지 못한다는 사실과 직면하곤 했다. 불교라는 종교의 진상이 무엇이며, 그 신앙으로서의 형식과 절차는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한마디로 불교는 이런 것이라고 한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일목요연한 안내서 같은 것이 없기 때문이었다.



신항섭 (미술평론가)

교리·의식·수행 등 궁금증 해소 올바른 신앙생활 길찾기 도움

간헐적으로 절간에 다녀왔던 누군가 불교에 대해 조목조목 물어왔을 때 스스로가 놀랄만큼 무지한 자신을 발견하는 일은 예사였다. 그런단중 수년전 석지현스님을 알게됐고 스님이 쓰신 두권의 저서를 선물로 받았다. 그중 <불교를 찾아서>(일지사 刊)는 이제까지 내가 알고 싶었던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망라하는 뜻밖의 등불이었다.

적어도 이 책은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안팎의 형상을 개략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길라잡이로서 손색없다. <불교를 찾아서>는 불교를 알고자 하는 일반인은 물론이요, 나처럼 단편적인 지식을 주워담는데 치르는 어수룩한 불자들이 좀더 확실한 자기 모임을 추스린다는 뜻에서라도 한번쯤은 읽어 두어야 할 책이라는 생각이다.

어떤 이는 신생활을 하는데 지식이 무슨 소용이며, 형식과 절차가 무슨 필요냐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그 시작 이래 형식과 절차에 의해 그 존재가 유지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종교란 지식이나 형식 또는 그 절차가 본질인 것이 아닌 것만 분별하지만 말이다. 이 책은 ‘불교의식의 이해’ ‘부처는 누구인가’ ‘교리·수행’ ‘신앙’ ‘경전’ ‘역사’ 등 크게 7개 항목으로 나뉘어 불교입문자들이 가지는 기초적인 의문에 답하는 세부적인 문항들을 거느린다. 이쯤에서 보면 불교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은 단박에 해소시킬 수 있을만 하다. ‘불교백과 소사전’이라고 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불교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려니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찾아들어갈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출판소식

“일본불교는 생활문화의 일부분”

철학과 현실사, “종교를 알아야...” 펴내

불교등 전통종교를 통해 일본의 문화를 들여다 본 책이 나왔다. 덕성여대 이상경교수(일어일문)가 번역한 <종교를 알아야 일본을 본다>(고이개 나가유키 지, 철학과현실사 刊)는 일본 고유의 종교가 어떤 것이며 불교는 일본에 어떤식으로 받아들여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일본의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었는가를 실생활과 결부시켜 쓴 일본 연구서.

특히 역사의 흐름을 통해 ‘나라 불교’ ‘헤이안 불교’ 등이 당시의 권력자들과 관련을 맺으면서 현실속에 뿌리내리는 과정을 잘 묘사했다. 역자인 이상경교수는 ‘일본에 있어서의 종교는 이미 생활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점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라고 지적한다. 태어나신산(山寺)에 가서 정대를 받고, 기회가 닿을때마다 절이나 신사에 참배하

며 마음의 활력을 되찾고, 죽으면 절에서 화장(火葬)이 된다는 설명이다.

‘모독’ ‘한국미의 탐구’ 등 청소년 권장도서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는 새 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읽어야할 유익한 책 34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청소년 권장도서는 <모독>(박완서 지, 학교재), <한국미의 탐구>(김원용 지, 열화당), <우리 옛그림의 아름다움>(이동주 지, 시공사),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1, 2>(주강현 지, 한겨레신문사), <그림없는 미술관>(안규철 지, 열화당), <역사를 위하여>(강만길 지, 한길사), <낙엽 한 장만한 바람>(김은숙 지, 교학사) 등으로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 11개 분야에 이른다.

◇ 금주의 베스트북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삶은 꿈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3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4	힘든 세상, 지나 닦지	효 립	가 서 원
5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6	삼소굴 소식	명 정	국학선원
7	불교입문	초경종교원	조 계 종
8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응	용 화
9	네 발발부터 살피라	정 념	장 승
10	도솔전에서 만났습다	장 순 응	세 계 사

구입문의: (02)737-0695

조선미의 탐구자들

한영대 지음

재일교포 미술사학자 한영대씨(58)가 쓴 <조선미의 탐구자들>은 일제하에서 한국의 불교문화재등 고미술품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인물들과 그로 인해 보존될 수 있었던 문화유산을 소개한 책. 조선미술에 심취해 조국에 등을 돌리기까지 했던 일본의 ‘인예파’ 미술가들, <조선미술사>를 저술한 안드레아스 에 카르트 등 구미출신의 조선미술 애호가 등 일제의 문화약탈에 맞선 사람들의 일화를 그렸다. 특히 △2점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 78호와 83호)이 입은 수난사와 △석굴암의 심밀면 관음보살상 앞에 있던 대리석 소탑의 반출사건, △경천사지10층석탑이 우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울인 호머 힐버트와 에네스트 베셀의 끈질긴 노력등 불교문화재에 얽힌 사연이 흥미롭다. (학고재 1만2천원)



일제하 우리문화재 지키기 사람들 일화

돌의나라 돌이야기

최영주 지음

<돌의나라 돌이야기>는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 그 안에 널려진 돌과 바위에 담긴 사연을 담은 중앙일보 최영주 기자의 이색 문화기행서. 우리 국토에 널린 석탑과 석불, 석등, 부도와 비석에 담긴 내력을 풍부한 사진자료와 함께 소개했다. 유물·유적에 나타난 ‘돌의 미학’을 통해 고대인의 의식세계를 엿보는 저자는 정림사지 5층탑, 분황사 석탑, 경천사지 10층석탑 등 불탑에서는 ‘조화와 원용’이라는 선조들의 미의식을 읽는다. 또한 지광국사 현묘탑, 법주사 쌍사자석등, 중원 고구려비, 첨성대, 석굴암, 회암사 태극계단 등 다양한 석조문화재를 통해 돌에 실린 천년의 혼을 더듬는다. (맑은소리 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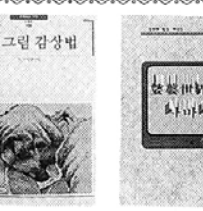


새로나온 책

▲보현행원품 강의(무비스님 지음)=모든 불경의 결론이 <화엄경>이라면 <화엄경>의 결론은 ‘보현행원품’이다.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되는 보현보살의 행원(行願)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나와 한 몸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섬기며 공양하라고 설한다. (민족사 6천5백원)



▲옛 그림 감상법(한정희 글·사진)=중국화, 한국화, 일본화의 독자적인 해석법이 어떻게 다른가를 많은 그림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벽화 불화 정형산수 실경산수 동상 인물화 풍속화 화조화 동물화 등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배열, 유형화법과 변천사를 알 수 있게 했다. (대원사 3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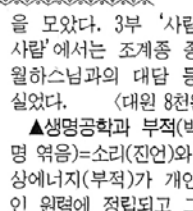


▲사비세계(김관태 지음)=경남신문 김관태 논설위원의 칼럼집. 1부 ‘특과 짚’은 ‘경남신문’에, 2부 ‘여론의 이름으로’는 95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고파’란에 쓴 불교적 칼럼



를 모았다. 3부 ‘사람과 사람’에서는 조계종 종정 율하스님과의 대담 등을 실었다. (대원 8천원)

▲생명공학과 부처(박지명 역음)=소리(진언)와 형상에너지(부처)가 개인적인 원력에 정립되고 그것에 마음이 집중될 때 평온한 마음으로 명상상태에 들게 되면 정신적인 안정, 질병치료와 건강, 깨달음 등에 이르게 된다. 히말라야평상요가센터 박지명소장이 진언과 부처의 의식수준을 확장하는 수단임을 밝혔다. (까침의소리 1만8천원)



오쇼 라즈니쉬의 진리로운 책들...



살아 있는 선(禪)

-오쇼 라즈니쉬의 <벽암록> 강의

성철 스님은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일을알아가기 딱 끊어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선문제일서로 유명한 벽암록, 그중에서도 선가에서 손꼽히는 선문답을 20여 개 골라 어렵고 불분명하기만 했던 선의 세계를 오쇼가 여기에서 명쾌하게 풀어헤친다.

류원장 옮김 / 380쪽 / 값 9,000원

42장경

붓다의 42장경을 힘써서다 제시하고 기기에 대한 오쇼 자신의 상징적 깨달음과 특유의 우주적 통념, 재치 있는 예화를 곁들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제1권 삶의 해변에서 오온 조약돌 / 448쪽, 제2권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 440쪽 황광우·이경욱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

말없는 자의 말 (양장본)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철학과 신을 바라본 인도의 명상가 오쇼의 생애 마지막 명상록 이경욱·황광우 옮김 / 176쪽 / 값 4,800원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옛 선사들의 뇌성이 있다

